



양계안테나

품종간 능력차이 점점 줄어 철저한 기록관리로 생산성 향상을

최근 고가의 양계산물 가격이 형성되고 있으나 양계 생산물의 가격은 항상 등락 폭이 심하기 때문에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가격이 오를 때는 생산물이 적어지고 가격이 하락 할 때는 생산물이 많아서 문제가 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양계인들은 일단 닭을 입식한 후에는 가격에 신경 쓰기보다는 생산성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국내에 공급되는 모든 육종회사의 각 품종들은 모두 우수하게 개량이 되어 왔으며 각자에 맞는 사양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양계인들이 정상적인 관리를 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육종된 품종들이다. 따라서 생산성이 나쁜 농장은 그 만큼 사육단계 어디에선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나빠졌다는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종계장에서는 종계관리를 잘하여 좋은 종란을 생산하고, 부화장에서는 부화관리를 잘하여 양질의 초생추를 생산하고, 농가에서는 육추 육성을 잘하여 최고의 생산성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생물체인지라 언제 어느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 줄은 아무도 모른다. 잘못된 부분을 모르고 지나가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알아도 말해주지 않는다. 우리 모두는 불신이 생기고 낭비가 많아 질 수 밖에 없다. 최고의 성적을 내지 못하는 계군은 어느 단계에서인가 반드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질병이 운이 좋아서 걸리지 않은 것인지 형식적이지 않고 몸으로 부대끼는 철저한 관리를 해서 오지 않은 것인지는 각자 생각 해 볼 일이다.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자만해서도 결코 안될 일이다. 기록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안되는 일이 많다. 바로 기록해야 하는데 나중에 하면서 영원히 넘어가 버리는가 하면, 문제가 발생한 후 자료를 찾으면 늘 없다. 각종 문제가 발생 했을 때 대항할 능력을 상실케 만든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라는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양관리 공부를 많이 하게 만드는 나라다. 생

산자는 많은 말이 필요없다. 말이 없어도 계군의 생산 성적을 보면 충분이 알 수 있기 때문이다.(유수동 김정팀장)

양계자조활동자금 준비 현황 2005년 거출금 조성 등 본격 활동

자조금사업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날로 증가하면서 본회를 비롯한 자조금관련단체들의 협의하에 양계자조활동자금 추진이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달부터 계획하고 있는 양계자조활동자금 세부추진 일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산란계의 경우 전 축종에 걸쳐 도축장에서 자금을 거출하게 되어있는 방식과는 달리 정상적인 도계작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실용계 병아리 분양시 일정금액을 거출하는 등의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문제를 선결한 후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의 추진사항은 육계, 산란계 공통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먼저 공동자조활동자금준비위원회 설치를 10월 중순경에 실시할 예정인데, 준비위원 구성을 보면 육계, 산란계 각각 축산(양계)업자 8인 이하, 축산단체의 임원 4인 이하, 학계·소비자 및 유통전문가 각 1인으로 하여 모두 15인 이하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또한 준비위원회에서는 자조활동자금사업계획의 수립과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이후 10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는 자조활동자금사업 추진계획서 수립 및 대의원 선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이때는 수입 및 지출계획 등 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이 수립되어 자조활동자금사업의 큰 골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11월 초순에는 거출금 납부에 관한 투표를 거치게 되는데 거출금은 양계업자가 단체에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자조금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실제 거출방식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처리장의 대표자(산란계의 경우 협의회 선정)에게 위탁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일간지 또는 농·축산관련 전문지, 양계단체의 계시판을 통해 공표한다. 이 모든 절차가 끝난 이후 자조활동자금 사업계획 수립·제출 및 사업계획을 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득한 후 '05년 1월부터 거출금 조성 및 소비·홍보 등을 집행하게 된다.

한편 자조금의 용도는 첫째 양계산물의 소비홍보, 둘째 양계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셋째 양계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밖에 자조활동자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양계업계의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사항이다. 아울러 양계자조활동자금사업을 통해 수혜를 입는 양계관련 전 업계가 동참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같은 참여가 향후 양계산업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원동력이라 할 수 있겠다. (황일수 자조금사업팀장)

양계발전방향 모색은 우리들의 몫 전국양계인대회 성황리에 개최돼야

우리 양계업계는 지난 2002년 상반기부터 불어 닥친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게다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으로써 자식과도 같은 닭을 살처분하는 감내와 소비 급감의 이중고를 거쳐야 했다. 실상가상이라고 할까? 지난 3월 초순의 폭설로 많은 계사가 무너져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물론 다수 농가가 도산위기에 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 양계인들의 저력은 대단하였다. 무너진 계사를 재건하면서 급감한 양계산물의 소비회복을 위해 소비행사 캠페인을 스스로 거행하였다. 그 결과 조기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 이전 수준의 수준으로 소비를 회복시킬 수 있었다. 물론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 체계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우리 양계인 스스로가 이루어낸 업적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우리 양계인은 이러한 상황에 안주하기엔 아직도 풀어야 할 과제들이 너무나 많다.

채란계의 경우 고난가 기초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따라 일부 상인들간에 타업체의 거래처를 뺏는 일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으며, 큰 폭의 가격 D/C를 요구하는 상인들이 늘어가고 있어 이들을 배격하지 않고서는 후장기 등 계란유통 질서를 바로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들과 계약사육농가간의 계약서가 계열주체마다 다르고 마땅히 공인된 계약서가 없어 피해 발생시 서로간의 분쟁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증된 육계표준계약서의 재정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또한 태국으로부터 가열처리된 닭고기의 국내 유입이 가시화된 가운데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에 수입을 허용키로 하고 위생조건과 작업장 승인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어 국내 육계산업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종계의 경우는 사육수수 증가가 바로 양계업 불황으로 이어지며, 특히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된 이후에는 종계 사육수수가 증가하여 다시금 불황이 초래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수입자유화에 따른 수입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율화 이전의 생산물량이 이어지고 있어 적정사육수수를 산정, 종계의 쿼터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당면현안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향후 업계발전방향 모색은 양계인의 몫이다. 이에 따라 본 회에서는 10월과 11월중에 양계인대회(육계, 채란, 종계)를 각각 개최하여 분야별로 심도 있는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양계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업계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이 되길 바란다. (이보균 경영지도팀장) **양계**